

4. 삼국시대의 회화와 일본회화

1. 기록과 일본에 남아있는 고구려·백제·신라의 회화와 그 특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.

● 고구려의 회화와 일본회화

△담징(曇徵): 영양왕 21년(610년) 渡日. 奈良 法隆寺 금당벽화 그림.

“十八年春三月 高麗王貢上僧曇徵 法定. 曇徵知五經且能作彩色及紙墨 并造碾磑 蓋造碾磑始于是時歟.”(『日本書紀』22, 推古天皇 18년 庚午條)

△加西湓(가세이쓰): 일본 <천수국만다라수장(天壽國曼荼羅繡帳)>의 밑그림 그림.

△子麻呂

△화사씨족: 黃文畫師(기부미노에시) · 山背畫師(야마시로노에시) · 高麗畫師(고마노에시)

● 작품

<천수국만다라수장(天壽國曼荼羅繡帳)>, 623년작, 일본 奈良 中宮寺 소장.

622년(推古30년) 2월22일 사망한 성덕태자(聖德太子)를 애도하고 극락왕생을 염원하여 그의 비인 橘大女郞이 推古의 허락을 얻어 采女들로 하여금 제작케 한 것.

“畫者 東漢末賢 高麗加西湓 又漢奴加己利 令者 椋部秦久麻”

<다마무시즈시(玉蟲廚子)>, 法隆寺 소장

<高松塚(다카마쓰 쓰카)>, 7세기 후반, 일본 奈良縣 高市郡 明日香

● 백제의 회화와 일본회화

△인사라아(因斯羅我), 463년(雄略 7년) 渡日하여 畫部에서 활약. 『日本書紀』卷14, 雄略天皇 7年 癸卯(463년)

△백가(白加), 588년 승려, 寺工, 로반박사, 와박사 함께 渡日/596년 완공된 法興寺(飛鳥寺) 건축 위한 인원이었던 듯.

△도리(止利), 621년 法隆寺 석가삼존상 조각/ 이 외에 범룡사 금당 동벽 - 약사정토도/ 서벽 아미타정토도 그렸다고 전하나 확실치 않음.

△아좌태자(阿佐太子), 597년 渡日. 宮内廳 소장 <聖德太子及二王子像> 그림.

『日本書紀』권22, 推古天皇 5년 丁巳條, “五年夏四月丁丑朔 百濟王遣王子阿佐朝貢.”

△百濟河成(구다라 가와나리) 782~853

『文德實錄』권5에 의하면 본 성이 ‘餘’氏였으나 후에 百濟로 바꿈. “무맹에 뛰어나 강궁을 능히 쏘았고, 808년에는 左近衛가 되었다. 도화를 잘하여 여러 차례 천황의 부름을 받아 古人的 진영을 그린 바 있고 山水와 초목에 이르러서는 모두 살아있는 듯 했으며, 승진을 거듭한 끝에 사망했는데 당시 72세였다. …… 그림 공부하는 사람이 모두 河成의 화법을 따랐다.”

이 외에도 百濟(구다라) 성을 가지고 활약한 화가들 이어짐: (百濟常良)구다라 쓰네요시, 百濟王爲孝(구다라 오타메타카)

△화사씨족: 河内畫師(가와치(노)에시); 畫工司에 소속- 국가적 繪事に 참여.

- <성덕태자상>

● 신라·가야의 회화와 일본회화

△화사씨족: 箕秦畫師(수하타노에시): 平安시대까지 이어짐

△秦久麻(하타쿠마): <天壽國曼茶羅繡帳>의 令者

△가야계 화가: 東漢末賢(야마토노 아야노 마켄), 漢奴加己利(아야노 누노 가고리);
<天壽國曼茶羅繡帳>의 밑그림을 加西湊과 함께 그림

【참고자료】

안휘준, 『한국회화사』, 일지사, 1980

안휘준, 『한국회화사연구』, 시공사, 2000